

아동의 특질 정보를 이용한 행동과 마음상태 추론

구재선 김혜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개인의 고유한 특질이 행동과 마음 상태를 유발하는 인과적 원인임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생(만5세)과 초등학교 2학년(만7세), 4학년(만9세) 아동에게 행위자의 특질 추론이 가능한 행동 정보를 제시하고, 행위자의 특질 유형, 행동, 및 마음 상태를 추론하게 했다. 그 결과, 특질을 명명하는 능력은 학령 전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여 학령기 이후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 또한 학령전기에 우연수준을 넘어서 학령기 이후까지 발달했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은 특질 정보를 참조해서 행위자의 믿음, 바람,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를 우연수준 이상으로 추론하지 못했고, 이러한 능력은 5세에서 7세 사이에 발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질이 마음 상태의 인과적 원인임을 이해하는 능력이 특질과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보다 더 늦은 시기에 발달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마음 이론, 특질 이해, 마음 읽기, 마음 상태 추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마음 상태를 추론한다. 넘어진 친구에게 다가가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고(의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바람), 자신이 친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믿음)한다고 추론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아이를 이타적인 아이라고 특질을

추론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론들은 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현상을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게끔 해준다. 따라서 믿음, 바람, 의도, 특질과 같은 마음 상태들을 읽는 능력은 사회적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절히 반

* 본 논문은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KRF 2005-079-HM0004).
* 연구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부속유치원, 조치원 유치원, 그리고 용암 초등학교 재학생들과 실험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김혜리, E-mail: hrghim@chungbuk.ac.kr

응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가? 지금까지 마음 이해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믿음, 바람, 의도 등을 마음 이해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아동이 언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2세가 되면 눈을 뜨고 특정 방향으로 시선을 주어야 지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눈과 지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Lemper, Flavell, & Flavell, 1977), 바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Wellman과 Woolley(1990)의 연구에서 2세 아동은 인간이 바라는 것을 이를 때까지 계속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바라는 것을 찾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할 것으로 추론했다. 이것은 2세 아동이 단순 바람과 행위,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세 아동은 이와 유사한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에서는 정확한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다.

믿음에 대한 이해는 3세경에 발달했다. Wellman과 Bartsch(1988)가 3세 아동에게 ‘강아지가 실제로 현관에 있을 수도 있고 차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현관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어디서 강아지를 찾을까’를 물었을 때, 3세 아동은 타인의 믿음을 근거로 정확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세 아동은 틀린 믿음(false belief)을 근거로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고, 이러한 능력은 4세경에 나타났다. Wimmer와 Perner (1983)의 연구에서 ‘주인공이 나가기 전에 초코렛을 서랍에 두었는데 엄마가 이것을 찬장으로 옮겼다면, 주인공은 돌아와서 어디에서 초코렛을 찾을지’를 물었을 때, 3세 아동은 실제 초코렛이 있는 찬장이라고 답했지만, 4, 5세 아동은 주인공이 틀린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Perner, Leekam, 그리고 Wimmer(1987)의 연구에서도 4세 이전의 아동은 타인의 틀린 믿음을 예측하지 못했다.

의도의 경우, 6개월된 영아도 의도성을 시사하는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달라서 의도적 행동을 이해했지만(Leslie, 1982), 외현적 수준에서 의도적 결과와 비의도적 결과를 구분한 것은 4세 이후였다. Astington(1991)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은 의도를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의도와 의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4세 아동은 고의로 수영장에 빠진 아이는 물에 젖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실수로 빠진 아이는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마음 이론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6세 이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Wellman(1990)은 2-3세의 어린 아동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론과 같은 형태의 개념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어린 아동의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은 성인의 마음 이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1은 Wellman(1990)이 제시한 아동의 마음 이론 도식이다. 이에 따르면, 어린 아동의 마음 이론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믿음과 바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은 행위(action: 냉장고 문을 열)가 믿음(belief: 냉장고에 물이 있다는 믿음)과 바람(desire: 물 마시기를 원함)에 의해서 유발되며, 행동의 결과로 반응(reaction: 행복)이 나타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믿음은 지각(perception)의 영향을 받고, 바람은 기본 정서와 생리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믿음은 다른 믿음에 영향을 주고, 바람은 다른 바람을 형성한다는 것 또한 아동의 초보적인 믿음-바람 추론 도식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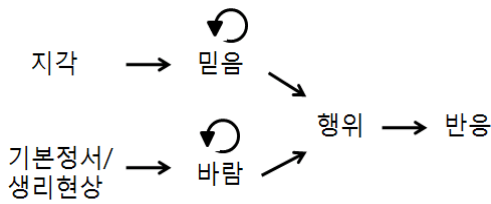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마음이론(Wellman, 1990,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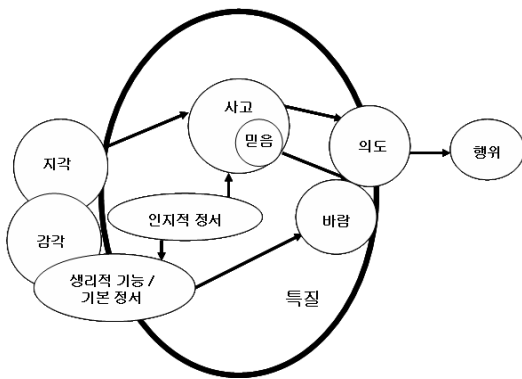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의 마음이론(Wellman, 1990, p.115)

반면에, Wellman(1990)이 제안한 성인의 믿음-바람 추론 도식은 아동의 도식과는 차이를 보인다(그림2 참조). 성인의 추론 도식은 여전히 믿음과 바람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밖에 의도, 인지적 정서, 특질과 같은 개념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개념들 간의 순행, 역행적 관련성이 증가한 점에서 성인의 마음 이론은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과 성인의 마음 이론은 그 구성개념 뿐 아니라 개념들 간의 연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마음 이론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 언제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마음에 대한 도식을 형성하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바람 도식을 갖고 있는 2-3세

의 어린 아동이 언제, 어떻게 성인의 정교한 마음 이론을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Wellman(1990)이 제시한 아동과 성인의 마음 이론 도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특질 개념의 유무이다. 그는 특질을 특정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지니는 믿음, 바람, 생각,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들과 행동들의 군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특질이 다양한 행동과 마음 상태들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A는 수줍기 때문에(특질), 파티에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행동),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았고(바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참석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믿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특질은 다양한 마음 상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Wellman(1990)은 특질에 대한 이해가 각 기본적인 마음 상태들을 이해한 이후인 6세 이후에 발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질은 그가 제시한 초기 아동의 믿음-바람 추론 도식에는 포함되지 않고, 성인의 추론 도식에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학령전의 어린 아동도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령 전의 유치원생들은 관대한 행위자가 이기적인 행위자보다 미래에 더 관대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Cain, Heyman, & Walker, 1997; Heller & Berndt, 1981), 행위자의 행동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질을 명명하거나 아니면 각 특질 어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Yuill, 1992b).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도 학령 전 아동의 특질 이해 능력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3세에서 7세까지 아동의 특질 이해 능력을 검토했을 때, 일련의 행동정보를 듣고 행위자의 특질을 명명하는 능력은 만 3세에 우연수준을 넘어서 만 7세가 되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발달했고, 특질에 근거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만 4세에 처음 우연 수준을 넘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행이 향상되었다(구재선, 김혜리, 김경미, 양혜영, 고숙남, 정명숙, 2006). 또한 윤정은과 송현주(2007)의 연구에서도 만 3.5세 아동은 한 도형이 다른 도형을 돕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고 도형의 특질을 우연수준 이상으로 정확히 추론했다. 특히 만 3.5세 아동은 도와주려고 했던 행동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에도 행동 의도에 근거해서 행위자의 특질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학령 전 아동의 특질 이해 능력을 보고한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행동과 특질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련의 행동을 보고 행위자의 특질을 파악하는 능력 혹은 행위자의 특질과 일치하는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측정했을 때, 학령 전의 어린 아동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특질은 행동 뿐 아니라 다른 마음 상태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특질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 상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파티에 가고 싶고 파티에서 즐겁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파티에 가고 싶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특질과 마음 상태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특질을 마음 상태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특질을 행위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늦은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nepp와 Ghilamkurti(1988)가 아동들에게 주인공의 특질 추론이 가능한 과거 행동을 3가지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상황에서 주인공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예측하게 했을 때, 연령이 높은 아동이 주인공의 행

동과 정서를 더 정확히 예측했고, 유치원생과 2학년 아동은 주인공의 행동보다는 정서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이 더 낮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Yuill과 Pearson(1998)의 연구에서도 특질 정보가 주어졌을 때 3세 이상의 아동은 행위자의 특질을 우연수준 이상으로 명명할 수 있었고, 4세 이상의 아동은 그러한 주인공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주인공의 정서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은 5세에 처음 우연수준을 넘었고 엄격한 준거를 사용했을 때에는 7세 아동만이 우연수준 이상의 수행을 보였다.

Heyman과 Gelman(1999)의 경우, 응답자에게 주인공을 착하다(nice), 못됐다(mean)와 같은 특질 어휘로 소개하고, 이러한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과 함께 동기나 기대와 같은 다른 마음 상태들을 추론하게 했다. 그 결과, 4세 아동은 주인공의 특질에 따라 동기가 달라짐을 이해했고, 착한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 결과보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못된 주인공의 기대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특질과 무관하게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행위자가 긍정적 정서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특질에 대한 이해가 6세 이후에 발달한다는 Wellman(1990)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들에서 학령 전의 어린 아동이 특질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특질 이해의 제한된 영역, 즉 개인의 특질과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일 수 있다. 비록 일부 연구들에서 아동의 특질을 통한 마음 상태 추론 능력을 검토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서적 반응과 같은 일부 마음 상태만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해서 다양한 마음 상태들에 대한 추론 능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특질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며(Allport, 1961), 사람들의 사고, 감정, 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으로 정의된다(Maddi, 1996). Wellman (1990)은 특질이 믿음, 바람, 의도,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를 포함하며, 특질은 이러한 마음상태들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그림2 참조). 이에 본 연구는 특질을 개인의 고유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는 생각, 느낌, 행동 양식인 동시에 행동과 마음 상태들을 유발하는 인과적 기제로 정의하고, 아동이 이와 같은 특질의 기본 개념을 언제 이해하는지 검토했다.

특질 이해 능력은 일련의 행동 정보에서 특질을 추론하는 능력,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행동 및 마음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측정했다. 행동은 관찰가능하고 구체적인 개인의 외적 측면인 반면에, 마음 상태는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Whiten과 Perner(1991)에 따르면, 마음은 ‘생각한다(thinking)’, ‘느낀다(feeling)’, ‘바란다(wanting)’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마음 상태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질을 통한 행동 예측과 마음 상태 예측을 구분하고, 마음 상태에 믿음, 바람, 의도, 정서를 포함했다. 본 연구는 특질이 이러한 마음 상태들을 산출하는 인과적 기제임을 아동이 언제 이해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특질을 명명하거나 특질이 행동의 원인임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늦게 발달하는가를 검토했다.

방 법

연구 대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총 18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집단별 참여 인원은 유치원생 48명(남자: 23명, 여자: 25명), 초등학교 2학년 학생 64명(남자: 34명, 여자: 30명),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9명(남자: 38명, 여자: 31명)이었다. 유치원생의 평균 연령은 만 5세(범위: 4년 11개월-6년 0개월)였고, 초등학교생의 평균 연령은 2학년이 만 7세(범위: 7년 10개월-8년 4개월), 4학년이 만 9세(범위: 8년 5개월-11년 5개월)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김정미 등(2008)과 양혜영 등(2008)의 자료 중에서 특질 관련 과제에 대한 응답만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측정 도구

선행연구(구재선 등, 2006; Heyman & Gelman, 1999)를 토대로 총 4편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서 각 시나리오는 Heyman과 Gelman(1999)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착한(nice) 아이, 못된(mean) 아이, 부끄러움을 타는(shy) 내성적인 아이, 그리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not shy) 외향적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였다. 선행연구가 이러한 특질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특질차원들이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도 친숙하고 현저하기 때문이었다(Heyman & Gelman, 1999). 사용된 4개의 특질은 Yuill(1992b)의 기준에 따라 사회의도적 특질(착한과 못된)과 내적 상태 특질(내성적인과 외향적인)로 구분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주인공의 특질 추론이 가능한 행동 정보를 제시한 후, 응답자들에게 주인공의 특질 유형, 행동 및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나리오는 먼저 주인공의 이름을 소개한 후, 주인공의 행동 정보를 두 가지 제시했다. 예를 들어, 착한 아이의 경우,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고, 계단을 내려가시는 할머니를 돕는다고 소개했다.

반면에 못된 아이는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친구에게 모래를 뿌려서 울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아이는 어른에게 자기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서 친구를 웃게 만든다고 소개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는 어른이 이름을 물을 때 엄마 뒤로 숨어버리거나 선생님 질문에 답을 알아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한다고 설명했다. 행동 정보를 제시한 후에는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술하게 하여서 응답자가 주인공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만일 시나리오에 제시된 행동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인공의 행동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응답자가 시나리오 주인공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주인공의 특질과 행동, 및 심리 상태(의도, 바람, 믿음, 정서)에 대한 질문을 했다. ‘특질 추론 질문’의 경우,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제시된 두 개의 특질 어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했다. 이때 특질 어휘는 두 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질을 제시하여, 아동이 단순히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질을 추론할 수 있는지 파악했다. 예를 들어, 착한 아이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주인공이 씩씩한 아이인지 착한 아이인지를 물었고, 못된 아이의 시나리오에서는 주인공이 못됐는지 아니면 겁이 많은 아이인지를 물었다.

‘행동 추론 질문’에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게 했다. 예를 들어 착하거나 못된 아이는 무거운 책을 들고 가는 사람의 책을 들어 줄지 아닐지를 물었다.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아이의 경우 선생님이 오락시간에 음악에 맞춰 마음껏 춤을 추라고 하시면 춤을 출지 그렇지 않을지를 물었다.

‘마음 상태 추론 질문’은 주인공이 자신의 특질과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의도, 바람, 믿음,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 유발된 정서 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착하거나 못된 주인공의 경우, 친구에게 물총을 쏘서 친구가 슬퍼하거나 시원해했다고 이야기한 후, 주인공이 물총을 쏜 의도(친구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괴롭히려려고 했는지), 바람(친구가 물총을 맞고 좋아하기를 바랬는지 싫어하기를 바랬는지), 믿음(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서(물총을 맞고 슬퍼하거나 시원해하는 친구를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상태를 추론하게 했다. 부끄러움을 타거나 타지 않는 아이의 경우는 놀이터에 놀러갔는데 아이들이 많거나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한 후, 주인공이 아이들이 많은 놀이터에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없는 놀이터에 가려고 했는지(의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없기를 바랬는지(바람),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했는지(믿음),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거나 없는 것을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정서)에 대한 질문을 했다.

각 시나리오에서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는 응답자가 처음 제시했던 시나리오 주인공의 행동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기억 질문은 제시된 두 개의 행동 중에서 주인공이 했던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착한 아이 시나리오에서는 계단을 내려가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갔는지를 물었다. 이후 모든 분석은 기억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

실험 절차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실험자와 응답자의 일대일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집단으로 실험

을 진행했다. 모든 실험은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각 과제들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PHP 연구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선으로 제시됐다. 실험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는 영상을 보고 헤드폰으로 음성을 들으며 과제를 수행했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실험자가 응답을 입력했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스스로 응답을 입력했다.

점수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서로 대칭이 되는 특질을 지닌 대상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제시된 시나리오 주인공의 행동 정보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과 마음 상태를 참조해서 응답을 해도 절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는 주인공이 착한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주인공이 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한다고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자가 서로 대칭이 되는 긍정적, 부정적 특질에 대해서 모두 정확한 답을 한 경우에 이것을 정답으로 인정하여 1점을 부여하고, 그 밖의 경우는 0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행동 추론 질문의 경우, 서로 대립이 되는 착한 아이와 못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두 정확히 예측한 경우는 1점을 부여하고, 두 질문 중 하나에만 정답을 한 경우나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오답을 한 경우는 0점을 부여했다. 그 후에 사회적 특질(착한-못된)과 내적 상태 특질(외향적-내향적)에 대한 점수를 합

산하여 각 과제 수행 점수를 산출했다(범위: 0-2점).

산출된 수행 점수는 특질명명, 행동추론, 의도추론, 바람추론, 믿음추론, 정서추론 점수였으며, 각 점수 산출에 포함된 문항의 수는 4개, 점수의 범위는 0에서 2점이었다.

결 과

기억 질문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시나리오는 처음에 주인공의 특질 추론이 가능한 행동 정보를 제시하고 이후에 6개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는 처음에 제시된 행동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서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응답자가 처음에 제시된 주인공의 행동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착한 아이 시나리오에서는 총 2명(1.1%), 못된 아이 시나리오에서는 8명(4.4%), 외향성 시나리오의 경우 20명(11.2%), 그리고 내향성 시나리오에서는 총 4명(2.2%)이 기억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표 1 참조).

기억 질문 오답자의 비율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을 때, 착한, 못된, 내향성 시나리오의 오답율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착한: $\chi^2_{(2)} = 1.22, n.s.$, 못된: $\chi^2_{(2)} = 2.96, n.s.$, 내향: $\chi^2_{(2)} = .42,$

표 1. 연령별 기억질문 오답자 빈도

	유치원생	2학년	4학년
착한	1	0	1
못된	4	1	3
외향	14	4	2
내향	1	2	1

n.s.). 그러나 외향적 주인공에 대한 시나리오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처음에 제시된 행동 정보를 더 기억하지 못했다($\chi^2_{(2)} = 21.75, p < .001$).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들이 상대의 특질에 따라 행동과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 행동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각 시나리오에서 기억 질문 오답자를 제외하고 최초 행동 정보를 마지막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억의 영향을 배제했다.

특질 추론

특질 명명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한 사람의 연령별 빈도와 퍼센트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행위자의 과거 행동 정보를 제시했을 때, 가장 어린 집단인 유치원생들도 86.4%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추론할 수 있었고, 이들의 79.4%는 행동 정보를 듣고 행위자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이항 검증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내적 특질과 사회적 특질 모두를 우연수준(50%) 이상으로 정확히 추론했다 ($p < .05$).

착한 또는 못된 특질을 명명하는 능력의 경우,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했다($\chi^2_{(2)} = 7.02, p < .05$).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연령집단씩 비교했을 때, 정확한 응답을 한 사람은 유치원생보다 초등학교 4학년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chi^2_{(1)} = 6.15, p < .05$), 그 밖의 집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학령 전의 5세 아동도 행동을 보고 행위자의 내적 특질과 사회적 특질을 추론하는 능력

표 2. 특질명명 정답자 퍼센트(괄호 안은 빈도임)

	유치원	2학년	4학년
착한-못된	86.4 (38)	95.2 (60)	98.4 (62)
외향-내향	79.4 (27)	72.9 (43)	63.1 (41)

표 3. 행동추론 정답자 퍼센트(괄호 안은 빈도임)

	유치원	2학년	4학년
착한-못된	93.2 (41)	93.7 (59)	93.7 (59)
외향-내향	64.7 (22)	93.2 (55)	92.3 (60)

을 우연수준 이상으로 갖고 있으며, 사회적 특질을 추론하는 능력은 학령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추론

행위자의 과거 행동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하게 추론한 사람의 연령별 빈도와 퍼센트를 표3에 제시했다. 착하거나 못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chi^2_{(2)} = .01, n.s.$), 학령전 아동도 90% 이상이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었다. 이항검증 결과, 이들의 정확한 응답은 우연수준(5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그러나 내-외향적인 사람의 미래 행동 예측 질문에 대해서 유치원생들은 64.7%만이 정확한 예측을 했으며,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다($p = .121$).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90% 이상이 정확한 예측을 했으며, 2학년과 4학년 모두 우연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연령별 차이를 검증했을 때에도, 유치원생의 응답은 초등학교 2학년($\chi^2_{(1)} = 12.31, p < .001$) 및 초등학교 4학년($\chi^2_{(1)} = 11.96, p$

< .01) 집단과 차이가 유의미했다.

요약하면, ‘착한-못된’과 같은 사회적 특질에 근거해서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학령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으나, ‘외향성-내향성’과 같은 내적 특질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는 시기에 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질 정보를 통해 행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특질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발달함을 말해 준다.

마음상태 추론

행위자의 행동정보에서 의도, 바람, 믿음,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한 사람의 빈도와 퍼센트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이항검증 결과, 모든 질문에 대한 유치원생의 정답률은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거나,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반면에 초등학교 2학년생의 정답률은 내-외향성자의 믿음 추론 질문에서만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고, 그 밖에 모든 질문들은 우연수준보다 더 정확히 응답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정확한 응답을 했다($p < .001$).

연령별 차이를 검증했을 때에도 마음 상태 추론에 대한 모든 질문의 응답이 세 연령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는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집단간 차이 검증을 했을 때, 내-외향성자의 믿음 추론 질문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 유치원과 2학년 집단의 응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2학년과 4학년의 응답은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내-외향성자의 믿음 추론 질문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2학년생의 응답에 차이가 없었고 ($\chi^2_{(1)} = 3.84, ns.$), 2학년보다는 4학년이 유의미하

표 4. 마음 추론 정답자 퍼센트(괄호 안은 빈도)

	유치원	2학년	4학년
의도추론			
착한-못된	56.8 (25)	87.3 (55)	95.2 (60)
외향-내향	64.7 (22)	91.5 (54)	86.2 (56)
바람추론			
착한-못된	15.9 (7)	74.6 (47)	82.5 (52)
외향-내향	50.0 (17)	83.1 (49)	87.7 (57)
믿음추론			
착한-못된	31.8 (14)	73.0 (46)	73.0 (46)
외향-내향	38.2 (13)	59.3 (35)	80.0 (52)
정서추론			
착한-못된	38.6 (17)	69.8 (44)	84.1 (53)
외향-내향	29.4 (10)	76.3 (45)	78.5 (51)

게 정확한 응답을 더 많이 했다($\chi^2_{(1)} = 6.32, p < .0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치원생들은 행위자의 특질과 일치하는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능력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사이에 발달했다. 그러나 내-외향성향자의 믿음을 추론하는 능력은 그보다 늦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질에 근거한 행동과 마음상태 추론 발달

사회적 특질(착한-못된)과 내적 상태 특질(외향성-내향성)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과제 수행 점수(범위: 0-2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5에 제시했다. 먼저 연령과 수행점수가 모두 가장 낮은 유치원생들의 수행이 우연 수준보다 더 높

표 5. 특질을 통한 행동과 마음상태 추론 능력의 연령별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치원	2학년	4학년
특질명명	1.64 (.60)	1.71 (.50)	1.62 (.49)
행동추론	1.58 ^a (.56)	1.86 ^b (.35)	1.87 ^b (.43)
의도추론	1.24 ^a (.56)	1.83 ^b (.42)	1.84 ^b (.37)
바람추론	.64 ^a (.65)	1.60 ^b (.67)	1.72 ^b (.49)
믿음추론	.70 ^a (.77)	1.34 ^b (.71)	1.54 ^b (.65)
정서추론	.67 ^a (.82)	1.48 ^b (.71)	1.62 ^b (.61)

첨자가 다르면 차이가 유의미함

은지 차이 검증을 했다. 두 개의 선택 안이 있는 두 개의 특질 쌍에 모두 정확한 응답을 할 확률은 25%이고 과제 수행 점수는 내적 특질과 사회적 특질에 대한 응답 점수의 합이므로, 각 과제에 대한 우연 수준은 .5이다. 각 질문에 대한 수행점수가 이러한 우연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을 때, 유치원생의 특질 명명($t_{(32)} = 10.83, p < .001$), 행동 예측($t_{(32)} = 11.02, p < .001$), 그리고 의도 추론($t_{(32)} = 7.61, p < .001$) 점수는 우연 수준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 추론($t_{(32)} = 1.20, n.s.$), 믿음 추론($t_{(32)} = 1.47, n.s.$), 정서 추론($t_{(32)} = 1.17, n.s.$) 수행은 우연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의 모든 수행은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다음은 세 연령집단의 수행 능력의 차이를 일원 변량분석했다. 그 결과, 특질 명명을 제외한 모든 행동 및 마음 상태 추론 수행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Tukey 방식으로 사후검증했을 때, 행동 추론($F(2, 149) = 5.80, p < .01$), 의도 추론($F(2,$

149) = 23.31, $p < .001$), 바람 추론($F(2, 149) = 38.36, p < .001$), 믿음 추론($F(2, 149) = 15.89, p < .001$), 정서 추론($F(2, 149) = 21.64, p < .001$) 수행 모두에서 유치원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수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과 학령기 아동의 특질 이해 능력을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측정된 능력은 일련의 행동 정보에서 특질을 파악하는 능력,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특질 정보에 근거해서 행위자의 믿음, 바람, 의도,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들을 파악하는 능력이었다.

연구 결과, 학령전 아동인 유치원생들도 특질 유형에 무관하게 행위자의 행동을 보고 특질을 정확히 명명할 수 있었다. 학령전 아동의 특질 명명 능력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Yuill(1992b)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특질을 명명하게 했을 때 가장 어린 연령인 5세 아동도 정확한 특질을 명명했고, 3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재선 등(2006)의 연구에서도 가장 어린 3세 아동이 우연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특질을 명명했다. 윤정은과 송현주(2007)의 연구에서도 3.5세 아동은 외현적 수준에서 특질을 명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대상의 특질을 명명하는 능력이 학령기 이전에 발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치원생들은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연 수준 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 예측 능력은 특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사회적 특질의 경우, 학령전 아동은 착하거나 못된 사람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 90% 이상이 정확한 예측을 했고, 이러한 수행은 초등학생의 수행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서로 대립이 되는 두 개의 특질 쌍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을 한 경우이므로, 이들이 단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답했다거나 자신의 평소 행동을 참조해서 응답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령전 아동은 사회적 특질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특질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향성이나 외향성과 같은 내적 상태 특질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90% 이상이 이러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정확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에, 유치원생들의 정확한 응답율은 60%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응답은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아동이 내적 특질보다는 사회적 특질에 대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인과적 기제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에게 행동 목록을 주고 특질을 명명하게 하거나 반대로 특질 어휘를 주고 이를 정의를 기술하게 한 Yuill(1992b)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내적 상태 특질보다는 사회의도적 특질을 더 정확하게 명명하고 정의할 수 있었다.

한편 학령전 아동이 특질과 일치하는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은 특질을 명명하거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더 저조했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생들은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믿음이나 바람,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를 우연수준 이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특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왜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마음 상태를 예측하는 능력이 더 늦게 발달하는가? 이에 대해 Yuill(1992a)은 아동이 특질을

행동의 규칙성(behavioral regularity)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인과적 기제(causal mechanism)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질을 행동의 규칙성으로 이해할 경우, '특질A를 지닌 사람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행동의 안정성과 상황적 일관성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특질의 인과적 기제에 대한 이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행동의 규칙성이 사람의 내적 속성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관점이며, 이때 특질은 믿음이나 바람과 같은 마음 상태들을 산출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내적 속성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특질을 행동의 규칙성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마음상태를 판단하려면 특질을 인과적 기제로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이해는 행동의 규칙성에 대한 이해보다 늦은 시기에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질에서 행동을 추론하는 것보다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 더 늦게 발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Gnepp & Ghilamkurti, 1988; Yuill & Pearson, 1998). 그러나 아동이 언제 특질을 통해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하는가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패러다임을 사용한 Heyman과 Gelman(1999)의 연구에서, 5세 아동은 주인공의 특질에 따라 동기, 생각, 정서와 같은 마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아동에게 특질 어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마음 상태를 추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동을 통해 특질 정보를 제시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특질 쌍에 대해 정확한 추론을 했을 때만 정확한 응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선행연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5세 아동의 특질에 근거한 마음 상태 추론 능력에

있어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이한 점은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마음 상태 추론 능력 중에서 가장 늦은 발달을 보인 것은 외향적 또는 내향적 특질을 지닌 행위자의 믿음을 추론하는 능력이었다. 이러한 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생들도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고, 초등학교 4학년 집단에서 처음 우연수준 이상의 정확한 반응을 하였다. 반면에 착하거나 못된 행위자의 믿음은 초등학교 2학년생들도 우연수준 이상의 정확한 추론을 했다. 행동 추론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적 상태 특질보다는 사회적 특질 정보를 근거로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더 일찍 발달했다. 착한 또는 못된과 같은 사회적 특질은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에, 내/외향성과 같은 내적 상태 특질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특질 어휘는 어린 아동의 훈육에서 더 자주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동과 더 빈번하게 연결될 수 있다(예를 들어, “그런 행동은 못된 아이가 하는 것이다”). 내적 상태 특질보다 사회적 특질에 대한 이해가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하는 것은 이러한 친숙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어휘 사용이나 이해에 있어서도 사회의도적 어휘는 내적 상태 어휘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사용되거나 이해되었다(Ridgeway, Waters, & Kuczaj, 1985; Yuill, 1992b).

끝으로 특질을 통해서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은 믿음, 바람과 같은 단순한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보다 늦은 시기에 발달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단순 바람이나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능력만 2세에서 4세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해왔다(Perner, Leekam, & Wimmer, 1987; Wellman & Bartsch, 1988; Wellman & Woolley, 1990;

Wimmer & Perner, 1983). 본 연구에서 아동이 특질과 일치하는 마음 상태를 추론한 연령은 5세에서 7세 사이이다. 따라서 아동은 먼저 믿음이나 바람이 행위를 유발한다는 단순한 믿음-바람 추론 도식을 형성한 이후에, 특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인과적 기제임을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특질에 대한 이해 능력이 6세 이후에 발달한다는 Wellman(1990)의 주장과 일치한다.

마음이해의 발달에 대해서는 Wellman 이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Perner(1991)는 마음 이해 발달을 표상에 대한 발달로 설명했다. 표상은 현재의 실제 상황만을 표상하는 1차 표상, 현재의 사실과 다른 것을 표상하는 2차 표상, 그리고 표상에 대한 표상에 해당하는 상위표상으로 구분된다. 그는 상위표상이 가장 높은 수준의 표상이며 4세경에 발달한다고 보았다. 특정한 특질을 지닌 사람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려면 상위표상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질 정보를 통한 마음 상태 추론은 아동이 이러한 표상적인 마음이론을 갖는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Fodor, 1992; Leslie, 1994).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생아도 다른 인지 영역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이론기제(Theory of Mind Mechanism: ToMM)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영아들도 타인의 성향 또는 특질에 대한 지식을 암묵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견해와 일치한다(Kuhlmeier, Wynn, & Bloom, 2003; Song & Baillargeon, 2007; Song, Baillargeon, & Fisher, 2005). 그러나 이에 대한 외현적 지식은 암묵적 지식보다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은, 송

현주, 2007). 본 연구는 특질에 대한 외현적 이해를 다루었으므로, 암묵적 수준의 이해 또는 행위자의 선호도 추론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특질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며 동일한 차원 내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질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 차원은 사회적 특질과 내적 상태 특질로 제한되었고, 각 차원에 하나의 특질(착한-못된과 내-외향성)만을 포함했다. 선행연구에서 학령전 아동의 성격 특질에 대한 이해는 특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구재선 등, 2006), 다양한 특질 차원과 유형에 따라 그 복잡성과 이해 및 추론에 차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질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특질들에도 일반화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시나리오 주인공이 자신의 특질과 상반된 행동을 했을 때의 행위자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게 했다. 이것은 특질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 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질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 특질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한 행위자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 아동은 나이든 아동보다 특질이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Lockhart, Change, & Story, 2002). 그런데 본 연구의 과제는 특질과 상반된 행동을 한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령전의 어린 아동은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추론할 때 특질 정보를 참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비일관적 행동

때문에 주인공의 특질 자체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응답자에게 주인공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주인공의 특질을 명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령 전 어린 아동의 특질을 참조한 마음 상태 추론 능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에게 비일관적인 행동을 한 주인공과 일관적인 행동을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게 한 다음, 그 사람이 또 다른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물어으로써 아동이 특정 개인의 특질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더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측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든 아동과 어린 아동의 특질 이해의 질적 차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재선, 김혜리, 김경미, 양혜영, 고숙남, 정명숙 (2006). 아동의 성격 특질에 대한 이해 발달: 특질 추론과 상황적, 시간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1-20.
- 김경미,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구재선(2008). 유치원 아동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21-39.
- 양혜영, 김혜리, 김경미, 구재선, 정명숙, 박은혜 (2008). 초등학생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31-47.
- 윤정은, 송현주(2007). 아동의 행위자 성향 추론 능력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83-100.
- Allport, G. (1961). *Pattern and growth in*

-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 Astington, J. W. (1991). Intention in the child's theory of mind. In D. Frye and C. Moore (Eds.), *Children's theories of mind: Mental states and social understanding*. Hillsdale, NJ: Erlbaum.
- Cain, K. M., Heyman, G. D., & Walker, M. E. (1997). Preschoolers' ability to make dispositional predictions within and across domains. *Social Development, 6*, 53-75.
- Fodor, J. A. (1992). A theory of the child's theory of mind. *Cognition, 44*, 283-296.
- Gnepp, J., & G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Heller, K. A., & Berndt, T. J. (1981).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personality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2*, 683-691.
- Heyman, G. D., & Gelman, S. A. (1999). The use of trait label in making psychological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70*, 604-619.
- Kuhlmeier, V., Wynn, K., & Bloom, P. (2003). Attribution of dispositional states by 12-month-olds. *Psychological Science, 14*, 402-408.
- Lempers, J. D., Flavell, E. R., & Flavell, J. H. (1977). The development in very young children of tacit knowledge concerning visual perceptio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5*, 3-53.
- Leslie, A. M. (1982). The perception of causality in infants. *Perception, 11*, 173-186.
- Leslie, A. M. (1994). Pretending and believing: Issues in the theory of ToMM. *Cognition, 50*, 211-238.
- Lockhart, K. L., Chang, B., & Story, T. (2002).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he stability of traits: Protective optimism. *Child Development, 73*, 1408-1430.
- Maddi, S. R. (1996).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6th ed.). NY: Brooks/Cole.
- Miller, P. J. & Aloise, R. R. (1989).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causes of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60*, 257-285.
- Perner, J. (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MA: MIT Press.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year-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125-129.
- Ridgeway, D., Waters, E., & Kuczaj, S. A. (1985).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norms for ages 18 months to 6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01-908.
- Song, H., & Baillargeon, R. (2007). Can 9.5-month-old infants attribute to an agent a disposition to perform a particular action on objects? *Acta Psychologica, 124*, 79-105.
- Song, H., Baillargeon, R., & Fisher, C. (2005). Can infants attribute to an agent a disposition to perform a particular action?

- Cognition*, 98, B45-B55.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 Wellman, H. M., & Bartsch, K. (1988). Young children's reasoning about beliefs. *Cognition*, 30, 239-277.
- Wellman, H. M., & Woolley, J. (1990). From simple desires to ordinary beliefs: The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Whiten, A., & Perner, J. (1991). Fundamental issues in the multidisciplinary study of mindreading. In A. Whiten (Eds.). *Natural theories of mind* (pp. 1-17). Cambridge: Basil Blackwell.
- Yuill, N. (1992a). Children's conception of personality traits. *Human Development*, 35, 265-279.
- Yuill, N. (1992b). Children's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trait term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31-142.
- Yuill, N., & Pearson, A. (1998). The development of bases for trait attributi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aits as causal mechanisms based on desi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74-586.
-

1차 원고 접수: 2008. 10. 2

수정 원고 접수: 2008. 11. 10

최종게재결정: 2008. 11. 12

Children's behavioral and mental inference by using the trait informations

Jaisun Koo Hei-Rhee Gh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change of children's ability to use trait informations for making inferences about behaviors and mental states. A total of 181 kindergarteners, second-graders, and fourth-grad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 were presented two behavioral informations of a story character from which a personality trait could be inferred. Their tasks were to predict and infer the story character's behavior and mental states such as belief, desire, intention, and emotional response.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schoolers have ability to predict behaviors by using the trait informations. However, they could not use the trait informations as a basis for making mental infer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change from the viewing traits as behavioral regularities to understanding them as causal mediators to produce mental states such as desire, belief, and feeling.

Key words: theory of mind, trait understanding, mind-reading, mental inference